

##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김미란 (전남과학대 사회복지과)

이숙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과 학년에 따라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능과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고, 성과 학년, 친구관계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각각 재학중인 남녀학생 515명 이었고,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alpha$  계수, 요인분석, ANOVA와  $\chi^2$ 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단짝친구와 친한 친구, 집단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상호작용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하는 청소년이 68.35%,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청소년이 44.47%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기능 중 친구에 대한 신뢰를 가장 높이 지각하였고, 경쟁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았다. 또한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지각에 있어서는 사회적 수용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전반적 자아가치, 행동품행,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과 학년에 따라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 및 만족도,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단짝친구, 친한 친구수, 집단 친구수,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에 따라 친구관계의 기능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성, 학년, 친구관계 일반적 특성과 친구관계의 기능 및 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청소년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년은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을 제외한 모든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친구관계 관련변인에서 경쟁은 인지적 능력에, 갈등은 외모에, 도움 및 인정은 행동품행에, 갈등해결은 전반적 자아가치에, 친구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